

국내 10대 뉴스 (연합뉴스 선정)

■ 온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단어는 2015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공포 그 자체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1번 환자가 5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만 해도 메르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메르스의 빠른 전염력에 환자가 186명까지 급증하고 38명이 세상을 떠났다. 환자 수가 다시 0명이 될 때까지 반년을 넘긴 190일이 걸렸다.

메르스의 공포로 대형마트에는 발길이 줄고 2천 곳 넘는 학교에서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우리의 내수 버팀목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유커’도 발길을 돌렸다.

메르스가 병원을 통해 전염되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못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메르스는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확산됐지만, 의료진들의 사투와 손 씻기, 병문안 자제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새벽 서거했다. 향년 88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2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유훈은 ‘통합’과 ‘화합’”이라고 전했다. 2013년 김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필담식으로 글을 썼는데 그때 ‘통합’과 ‘화합’을 적었다고 한다.

같은 달 26일 영결식 당일까지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3만7천4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각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분향소 221곳의 조문객까지 합치면 23만7천819명에 달한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1993~98년)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해체와 정치군부 숙청,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금융실명제를 ‘깜짝’ 시행하는 등 경제개혁도 이뤄냈으나 집권 후기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빛이 바랬다.

■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현직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3월 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

한 미국대사가 반미성향의 김기종(55) 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김 씨는 테이블에 앉아 강연을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에 게 갑자기 달려들어 25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고, 무방비 상태의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광대뼈부터 턱밑까지 길이 11cm, 깊이 3cm의 자상과 왼쪽 팔 전완부(팔꿈치~손목) 관통상, 새끼손가락 신경손상 등의 큰 상처를 입었다.

긴급 후송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을 80여 바늘 꿰매고 왼쪽팔 전완부 신경접합술을 받는 등 2시간30여 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다.

피습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당시 한·미동맹의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리퍼트 대사는 “한·미동맹 진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 같이 갑시다”(수술 후 4시간 만에 트위터 글),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퇴원 기자회견)라며 초지일관 의연한 대처로 일각의 우려를 잠재웠다.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9월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치권 싸움으로 본격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교과서 좌편향 지적은 보수층 결집을 노린 색깔공세이자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여기에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한 친반 논쟁도 뜨거워지면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하반기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는 10월 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친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새 역사 교과서는 앞으로 1년여간의 집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쓰이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집필진 명단을 포함한 집필과정 자체를 비공개할 방침을 밝히는 등 국정화 확정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성완중 리스트’ 파문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 8명 이름이 포함된 ‘공품 메모’를 남기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성완중 리스트’로 회자된 이 메모지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준(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쓰여 있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시작되고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거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불법 대선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증거 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통해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흐지부지됐다.

■ 北 지뢰도발에도 8·25 합의로 남북 이산상봉·당국회담

북한이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8월 4일 우리 장병 2명이 크게 부상했다. 우리 군은 대응조치로 같은 달 10일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8월 20일 고사포와 직사포로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가했고, 우리 군은 대응사격과 함께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북한이 추가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8월 25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군사적 대치 상황은 종결됐다.

남북은 8·25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준전시상태 해제 이외 이산가족 상봉, 당국회담 개최,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10월 20부터 26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으며, 11월 26일 판문점 실무접촉을 거쳐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차관급이 수석대표를 맡는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안철수 탈당·총선 4개월 앞두고 제1야당 분열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제1야당 분당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탈당을 만류하기 위한 당의 종진과 수도권 의원 등의 중재 노력에도 결국 문재인 대표와 당의 혁신방향에 대한 인식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섰다. 2014년 3월 2일 김한길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온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안 전 대표가 독자세력화를 선언하면서 2016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야권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 분열이 현실화하면서 한층 더 어두워진 선거 전망과 안 전 대표의 뒤를 이을 탈당 물결에 대한 위기감에 충격에 빠졌다. 반면,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신당 세력은 '폭발력' 있는 통합신당을 만들자며 안 전 대표에 적극적으로 손짓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2016년 총선에서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를 복원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가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는 일치하지 않는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해당 조항은 일부일처주의 및 가족제도 유지 등을 명분으로 1953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인권 신장 추세 속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으면서 존폐 논란이 계속됐다.

헌재는 앞서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며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었다.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 문란화, 가족공동체 해체 촉진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 차대통령 중열병식 참관·한·일 첫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 텐안먼 성루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나란히 서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 자리는 195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과 함께 서서 열병식을 지켜봤던 곳이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관은 한·중간 신(新)밀월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미국 후호국 정상 중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의장대 공식사열을 받는 등 10월 방미를 통해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켰다.

박 대통령은 11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으나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결정적 진전은 아직 없는 상태다.

■ 갈등 키운 식물국회·노사정 대타협도 빛바래

2015년 한해는 정치도, 입법도 실종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조차 12월 10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치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자성했을 정도였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사실상 실패했고, 국회의 기본 책임인 입법 성적표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12월 2일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에 도전했지만, 여야 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끝내 법정시한을 48분 초과하고 말았다.

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12월 9일 오전 기준 2015년 발의된 법안 수는 4천 436건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천30건으로 가결률이 23.2%에 그쳤다. 이는 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률(31.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9월 17년 만에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여야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있고, 2016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확정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협상 여건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 역시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10대 뉴스 (연합뉴스 선정)

■ IS의 파리 테러··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 돌입

연초부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줄이든 한해였다. 1월 7일에는 예멘 알카에다에서 훈련한 극단주의자들이 프랑스 파리의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해했다.

8월 18일에는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에서 중국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들이 설치한 폭탄이 터져 20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했다. 10월 10일에는 터키 앙카라역 광장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02명이 숨졌고, 같은 달 31일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폭발로 추락해 탑승자 224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파리에서 11월 13일 금요일 밤 발생한 테러는 전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IS 조직원들이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 축구장 스타드 드 프랑스 근처, 식당가, 거리에서 연쇄테러를 저질러 130명이 숨졌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적대세력이나 상징물을 겨냥하던 테러가 일상을 즐기던 민간인, 즉 ‘소프트타겟’(soft target)으로 표적을 옮겼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 분노하고 테러에 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IS의 근거지인 이라크,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다국적군의 공습이 확대됐고 미국은 일부 전투부대를 투입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IS에 대한 공습의 빈도를 높였다.

그러나 극단주의 세력의 직접적인 조직원이 아니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영향을 받은 ‘외로운 늑대’들이 저지르는 자생적 테러를 어떤 방법으로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테러에 대해 배후를 자처하고 나서는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선동, 테러 노이로제, 이슬람 혐오증 등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다.

■ 미·중 패권경쟁 격화··중국 군사·경제 굴기

2015년 중국은 경제·정치·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초강대국 미국과의 경쟁구도를 본격화했다.

연초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영국 등 미국의 우방을 줄줄이 참여시킨 중국은 6월 창립 때는 회원국을 57개국으로 확대하며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新) 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도 속도가 붙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남아시아와 유라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경로에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경쟁상대인 미국, 영국까지 방문하며 분주하게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중국이 6월 이후 증시 급등락과 경기둔화 우려 속에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12월에는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가 되면서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다시 각인시켰다.

9월 3일 대대적인 전승절 열병식으로 군사굴기도 과시한 중국은 공격형으로 군구를 개편하고 군을 슬림화, 현대화하겠다는 구상도 선언. 군사·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군함 대치와 인공섬 조성 등으로 긴장국면이 계속된 남중국해 분쟁도서 일대는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현상이었다. 아울러 미국 정부부처에 대한 중국의 해킹 의혹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를 둘러싸고도 충돌이 계속됐다.

■ 난민·그리스사태로 유럽 분열위기··통합 시험대

유럽연합(EU)과 단일통화 지역 유로존이 자랑하는 강력한 결속력은 2015년에 큰 도전을 받았다.

EU의 창립 회원국인 그리스는 6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18억 유로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애초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데도 유로존에 무리하게 가입해 위기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Grexit)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은 긴축정책에 대한 견해차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넘겼다.

영국에서는 EU 탈퇴 논의가 달아올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에 가입한 뒤 재정이 악화하고 이민자들이 많이 늘었다며 ‘브렉시트’(Brexit)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는 공약을 내걸고 2015년 5월 재집권에 성공했다.

중동, 북아프리카의 정세불안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난민사태도 유럽의 분열을 부추겼다. 특히 2001년 이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IS의 거점이 된 시리아에서는 피란민이 무려 400여만 명이나 발생해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국가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대규모 난민의 할당을 두고 EU 회원국들은 갈등을 빚었다. 난민의 통로가 되는 국경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EU 가입국 간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쉥겐조약이 깨질 수 있다는 위협까지 나올 정도로 유럽 통합이 흔들리고 있다.

■ 미얀마 총선 수치야당 압승…53년만의 민주화

11월 8일 25년만에 치러진 미얀마 자유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제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했다. NLD는 군부 의석을 합해 총 657석인 상하원 의석 중 59%를 확보해 대통령을 배출하고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NLD가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반세기 동안 군부 지배를 받아온 미얀마에서는 민주화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총선 승리 이후 수지 여사는 테인 세인 대통령,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 등과 만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약속받았고,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 미얀마를 철권지배했던 독재자 탄 슈웨 전 장군도 수지 여사 지지를 표명했다.

헌법에 가로막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수지 여사가 '대통령 위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체 의회 의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정치 세력인 군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얀마의 새 의회는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새 의회는 개원하자마자 상원 및 하원 의장을 뽑고 곧 대통령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 이란 핵협상 13년만에 역사적 타결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협상이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타결됐다.

당초 6월 30일을 최종 타결시한으로 잡았던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은 시한을 수차례 연기하는 진통 끝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주요국들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로써 중동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폭로로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노력으로 13년 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불리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은 7월 20일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통과로 첫 단추를 채웠다. 뒤이어 9월에는 미국 의회를 통과하며 고비를 넘겼고 10월에 이란 의회에서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하면서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에서 이란이 핵시설과 핵물질 감

축을 약속대로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2016년 초부터는 이란에 취해져 온 경제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고, 이란은 경제회복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윈-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란 핵 타결로 북한이 미국의 '다음 상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북한은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보유국임을 스스로 주장한데다 제네바 합의 파기 선택도 있어 이란과는 다른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 일파만파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인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지난 9월 적발하고 1차로 48만 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으나 파문은 멈추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이 조작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최소 95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신뢰받는 독일기업'의 이미지에 먹칠이 됐다. 조작장치는 폴크스바겐의 계열사 브랜드인 포르세, 아우디, 스코다, 세아트 등에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나선 상황에서 '친환경 디젤'을 주창한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자 지탄이 이어졌다. 폴크스바겐의 주가가 폭락하고 마르틴 빈터코른 최고경영자는 사퇴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사법처리 위기에 몰려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는 배기가스 조작 정황이 있는 폴크스바겐 차종의 판매를 금지했다. 한국 정부도 폴크스바겐 디젤차량이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리콜을 명령했으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 세계 '최대 FTA' TPP 타결…글로벌 무역전쟁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10월 5일 타결됐다.

TPP 타결로 미국, 일본 등 참여 12개국은 자동차, 쌀, 낙농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 무역장벽을 없애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TPP는 애초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했다.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바뀌었다. 이후 베트남·말레이시아(2010년), 멕시코·캐나다(2012년)가 협상에 참여했고 2013년에는 일본이 막차로 합류했다.

이들 참가 12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TPP 타결은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

자은행(SIB)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급 부상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한국도 TPP 가입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 는 가운데 참여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 동유럽·남미서 좌파정권 붕괴 ‘도미노’

2015년 유럽과 남미에서는 좌파 정권이 우파에 밀려 연패하 면서 정권교체가 잇따랐다.

유럽에서는 밀려드는 중동 난민에 사회적 반감이 커지면서 반(反)난민 정책을 내세운 우파가 상대적으로 난민 친화적인 좌파 정권을 밀어내고 속속 집권에 성공했다. 10월 폴란드와 스위스 총선에 이어 11월 크로아티아 총선에서도 난민 유입 제 한을 주장한 보수 정당이 난민 수용 정책을 표명한 중도 성향 의 집권 여당을 잇따라 누르고 대승을 거뒀다.

극우파도 두드러지게 세를 넓혔다. 특히 12월 프랑스 지방선 거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파리 테러 이후 고조된 반(反)이민, 반이슬람 정서에 힘입어 1위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원유 수출 국을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불안이 심 해지면서 민심이 좌파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1월 대선에서 친(親)기업 보수 중도우 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당선되며 12년간의 ‘좌파 부 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런 흐름은 베네수엘라로 이어져 12월 총선에서 좌파 집권당이 16년 만에 참패했으며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가 진행되는 등 남미에서 득세해온 좌파 정권이 연이어 무너 졌다.

■ 미국 대선전 트럼프 돌풍…대선 조기가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당의 경선이 개막되기도 전에 선거전이 가열됐다. 애초에는 민주당과 공화 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과 공화당 쟁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각각 독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웃사이드’ 들의 돌풍이 거셌다.

돌풍의 핵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부동산 억만장자 도널 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과거 리얼리티쇼 진행을 맡을 정도의 입담을 앞세워 진솔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공화당 유권자들 을 홀렸다.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과 같은 장벽을 쌓아 불법 이주민 을 막고 미등록 이주민을 모두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등 그의 발언은 나올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국에 대해 서는 근거없는 ‘안보무임승차론’도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지지층인 소외된 백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호감은 점점 뜨거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화당 기득권 세력 내에서는 트럼프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가 12월 7일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 는 발언까지 하자 공화당 후보들은 일제히 공화당의 가치와 다르다며 선을 그었고, 세계 각국에서도 그를 히틀러에 비유

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백악관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아 웃사이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꾸준한 추격을 받 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 고액 강연을 하고 개인 이메일을 공무에 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 뉴호라이즌스호 명왕성 최근접…인류 우주탐사 새 역사

인류는 태양계 경계로 여겨지는 명왕성을 가까이에서 관측 해 우주탐험사에 이정표를 세웠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가장 바깥 행성으로 분류돼오다 8년 전 ‘왜행성’으로 분류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존스홉킨스대가 함께 보낸 뉴호 라이즌스가 7월 14일 오전 7시 49분 57초(한국시간 오후 8시 49분 57초)에 명왕성에 약 1만2천550km까지 접근했다. 뉴호라 이즌스는 2년 4개월여의 제작 과정을 거쳐 2006년 1월 19일(이 하 현지시간) 발사돼 중간에 동면도 하면서 10년 가까이 명왕 성을 향해 나아갔다.

소형 승용차 크기의 이 탐사선은 각종 첨단기기로 촬영한 명왕성의 고화질 사진을 지구로 계속 전송하고 있다. 초속 약 14km로 명왕성에 접근해 지나치면서 찍은 사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보다도 정확하고 선명해 우주팬 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명왕성 최근접점을 통과한 뉴호라이즌스는 태양계의 진짜 경계인 ‘카이퍼 벨트(Kuiper Belt)’를 탐사하러 떠났다.

서울시 10대 뉴스

(서울시민 14만6천255명과 시 공무원 1천904명이 선정)

- 위기 시 초기대응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양성하는 내용 의 ‘10만 시민안전파수꾼’
- 연트럴파크(연남동과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합친 말)로 불리며 흥대 인근의 명소로 떠오른 ‘경의선 숲길’
- 한강몽땅 여름축제
-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 여성안심특별시
- 서울 일자리 대장정
-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
- 서울관광 위기탈출 넘버원

미디어 10대 뉴스

(기자협회보 기자 개별 추천과 토론, 편집위원 투표로 선정)

- 끝없는 징계·재징계·해고
- 요동치는 뉴스 플랫폼..디지털 드라이브

- 언론인 처벌 포함 '김영란법' 논란
-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언론 협박
- 전방위적 인터넷 여론통제
- 언론인, 또 하루아침에 청와대행
- 공영방송 장악한 극우 인사들
- "기사 팝니다" 대놓고 정부 홍보하는 언론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
- 기자 폭행에 몰대포..경찰의 취재 방해

소비자 10대 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정)

- 소비자재단 창립
- 가짜 백수오 사건과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논란
-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 사태
- 메르스 확산과 응급의료체계 부실
- 플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 HACCP 인증제도의 관리 강화
-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 은행 시대의 개막
- 부동산 반값 증개수수로 개정
-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 논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금융소비자원 선정)

- 말만 요란한 '가계부채' 대책
- 자본시장의 불법행위 고착화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 은행권 '계좌이동제' 시행
-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폐해 부각
- '안심전환대출' 실패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실적내기 '복합점포' 제도 시범운영
-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도입
- '메르스 보험' 실패

보험업계 10대 뉴스 (연합인포맥스 선정)

-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오픈
- 고가차량 자차보험료 최대 15% 인상 등 보험료 합리화
- 실손보험료 2016년 최대 30% 인상
- 자살보험금 미지급...여전한 논란 =
- KB금융지주 LIG손해보험 인수...KB손해보험 출범
- 저금리에 보험사 공시이율 '뚝뚝' 떨어져
- 업계 첫 단종 보험대리점 등장
-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로 상승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점수제 유지
- 보험사, 복합점포 시대 개막

증권시장 10대 뉴스 (한국거래소 선정)

-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와 지주사 개편 추진
- 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과 엘리엇 사태
-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정책 기조 확산
-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 침체
- 대기업 간 사업구조 개편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 중국 증시 급락
- 기업공개(PO) 활성화
-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신흥국 자금 이탈

과학기술 10대 뉴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선정)

- 온도·습도·촉각까지 느끼는 스마트 인공피부 개발
- 열을 전기로 바꾸는 고효율 신소재 개발
- 국내 기업이 자유롭게 휘어지는 배터리 개발
- 베일에 싸인 세포의 비밀 RNA·마이크로RNA로 규명
- 무한 재사용 가능한 그래핀 연료전지 촉매 개발
- 고강도의 가벼운 친환경 철강 신소재 개발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국가방역 체계 재정비 시급
- 한국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 해외 기술수출 달성
- 핀테크 금융 혁신, 전자화폐 시대 개막
- 스마트(SMART) 원자로 해외수출 첫걸음

환경 10대 뉴스 (환경연합 선정)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 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과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슴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플크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발표

스포츠 10대 뉴스

(체육기자 선정)

- 스포츠계 도박·뒷돈 등 각종 비리로 몸살
- 박인비, 커리어그랜드슬램·한국인 2호 명예의 전당 입회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대통합 추진
- 프로야구 두산 14년만의 KS 우승..삼성 통합우승 5연패 좌절
- 한국야구, 프리미어12 초대 우승
- 박병호 등 메이저리그 도전 러시..강정호 성공 데뷔
- 약물복용 박태환, 18개월 선수자격 정지..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
- 광주 하계U대회 성공 개최..사상 첫 종합우승
- 김국영, 남자 100m, 한국신기록 달성..10초16
- FIFA 부패 스캔들..정몽준 회장 징계 논란

생활체육 10대 뉴스

(국민생활체육회 선정)

- 강영중 제10대 국민생활체육회장 취임
- 생활체육 즐길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 생활체육 등록동호인, 500만 돌파!
- 종합형스포츠클럽, 체계적으로 관리
- 생활체육시설 확충 위해 학교시설 개방
- 생활체육 나눔 문화 더욱 확산
- '생활체육 7330' 국민 인지도 38.9%
- 한층 더 뜨거워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유아·청소년 체육활동 대폭 강화
- 스포츠 단체 통합 가속화

바둑계 10대 뉴스

(한국기원 선정)

-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 채택
- 한국현대바둑 70주년
- 창설 20년 LG배·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역사 다시 써
- 국내 첫 여자바둑리그 '2015 엠디엠 한국여자바둑리그' 창설
- '밀레니엄동이' 신진서, '21세기 키드'로는 처음으로 종합 기전 우승
- 티브로드,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연패 달성
- 박정환, LG배 첫 우승하며 7년 만에 한국에 우승컵 선사
- '18세 소년 이동훈', KBS바둑왕전 우승하며 입단 후 첫 우승
- 최 정·오유진 '투툽', 여자기사 최초로 50승 고지 돌파
- 한국기원, 화성시와 '바둑의 전당' 설립 협약 체결

패션 업계 10대 뉴스

(한국패션협회 선정)

- 온·오프 통합 시대 : 모바일이 핵심 채널로
- 중국 의존도 상승 : 온라인 진출 활발
- K-패션 비즈니스 시작 : 패션워크 변화 및 쇼룸 비즈니스
- 콘텐츠 수요 증가 : 기업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협업
- 라이프스타일형 소비 추구 : 성숙한 소비자 등장
- 진화하는 패션 쇼핑 공간 : 복합쇼핑몰 인기
- 도심형 스포티즘 인기 : 아웃도어 하락세
- 내수 소비 진작 행사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sale day
- 윤리성 논란 : 저작권, 열정페이 문제
- 패션업계 주도의 웨어러블, 3D프린팅 상품 개발

무선인터넷 10대 뉴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선정)

- 300조 O2O 시장 열린다
- 사물 인터넷 시장.. 5년 내 5배 이상 성장 17조원 전망
- 전자상거래 중 모바일 비중 연내 50% 돌파.. 모바일 Only 전략 중요해져
- 간편결제.. 페이전쟁 등 핀테크 시대의 도래
- 폭풍전야의 증강·가상현실 시대
- 웨어러블 기기 확산 가속화
- 모바일게임 '부익부 빈익빈' 심화
- 급성장하는 MCN 기반 모바일 광고 시장을 잡아라
- 샤오미 등 중국기업의 한국 모바일 시장 '야금야금'
- 창조경제 스타트업 성공사례 '국민내비 김기사' M&A

모바일게임 10대 뉴스

(게임동아 선정)

- 넷마블과 엔씨소프트 합작 주식 맞교환
- 중국산 게임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습격.. 매출 상위권 점령
- 모바일 게임 시장, 마케팅 전장으로 변모.. TV 광고 등 규모의 경제로 돌입
- 블록버스터급 RPG의 돌풍..뮤 오리진, 레이븐, 히트까지 전체 시장을 점령
- 모바일 게임도 변혁의 바람..e스포츠부터 VR까지
- 모바일 게임 IP의 바람.. 갓 오브 하이스쿨, 리니지, 뮤 오리진, 킹오파, 메탈슬러그 등
- 대세는 글로벌.. 본격 원빌드 체제로, 서머너즈워 등 글로벌 성과도
- 게임 엔진들, 대대적 구조 변혁..'모바일 최적화에 초점'
- 모바일 게임 시장에 불어오는 인디 게임의 불
- 킹닷컴 승소에 따른 저작권 이슈,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에 불어오는 규제외의 바람들